

WE START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 2025 Vol. 15



WE START

‘안녕’이라는 한자의 뜻은 단순히 평안하고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마음과 환경 모두에서 고요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인사말로서의 ‘안녕’은 상대방의 평안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고, ‘안녕한 사회’는 갈등과 불안이 없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뜻한다.

오늘날 안녕이라는 인사는 단순한 말을 넘어 서로를 염려하고 돌보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인	김수길
발행처	사단법인 위스타트
기획, 편집	사단법인 위스타트
전화	02-318-5004
홈페이지	www.westart.or.kr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48-6
디자인	(주)얼스
컨텐츠	위스타트 소식지 15호

위스타트는 중앙그룹 JoongAng Group과 함께 합니다.



CONTENTS

04 커버스토리

라포엠

08 안녕

Servus! (제어부스)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안녕을 지키는 힘 '회복탄력성'

행복하려면 작지만 선한 행동을 반복하라

안녕이라는 말

18 여행

님해 동네 빵집에 일어난 작은 기적

20 필드

안산 중부 라디오

성장의 씨앗

늘봄학교에서

26 사업현황 및 재정보고

28 위스타트 News

46 후원자 Talk

COVER STORY



01 올겨울 감기가 엄청 유행이었는데 네 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을까요? 작년 한 해 연말까지 꽉 채워 공연하시고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채훈 저는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감기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은 연말보다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훈 작년에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덕분에 모든 공연도 잘 마쳤고요. 새해에 들어서는 다시 올해 있을 공연들과 음악 작업으로 조금은 한숨을 돌리며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진짜 부지런히 다니며 체력도 키우고 있고요.

민성 아주 건강합니다…! 요즘 더 건강한지 감기가 잘 안 걸리더라고요??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바쁘게 쉬면서 준비 중입니다ㅎㅎ

02 위스타트에서 제작해 드린 명함과 사원증도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탑내는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채훈 아 그런가요? 사원증은 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릴 순 없습니다. 하하

성훈 고이 잘 간직하고 있답니다. ^^ 프리랜서인 저희들은 가질 기회가 잘 없는데 뿐듯하네요.

민성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나 가족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포엠

- 03** 바쁘신 와중에 위스타트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면서 20주년 기념식에 축하무대도 서주셨어요. 기념식 했던 장소가 팬텀싱어 오디션장이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자리에 계셨던 팬분들도 뭉클하셨던 것 같더라구요. 그때 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채훈 같은 장소에서 오디션을 볼 때 객석은 암전이 되어 있어서 아무 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저만 혼자 덩그러니 서서 노래를 했는데, 그 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3~4곡 정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 반응은 시큰둥했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PD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유채훈이라는 사람한테 엄청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오디션장에서 노래를 듣고는 생각보다 별로여서 다들 당황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하하

성훈 사실 저는 해외에서 예심을 봤던 상황이라 그 장소가 오디션 장소는 아니지만 팬텀싱어 촬영 중에도 그곳에서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또 한 발짝 성장해서 다시 온 기분? 하하

민성 저는 해외 오디션이라 장소가 달랐지만 채훈이 형과 기훈이가 말할 때 저도 옛날생각이 나서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뚱뚱했을 때가 기억나네요ㅎㅎㅎ

- 04** 20주년 기념식 첫 순서가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하얀나래 합창단의 무대였어요.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니, 멤버들 각자의 어린시절 즐겨 들던 음악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지금의 음악적 색깔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채훈 기억이 나네요. 기념식 때 아이들의 순수한 음성에 정말 소름이 돋았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는 음악보다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노래는 중학교에 가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나도 어린 시절에 노래를 했다면 어떤 음성이었을까? 저 아이들처럼 맑고 순수한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훈 저도 어린 시절부터 합창단으로 꾸준히 음악의 세계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또래친구들보다는 다양한 곡들을 부르고 들었어요. 합창단 곡 중에서는 For the beauty of the Earth라는 곡이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엔 합창을 지금은 중창을 하고 있으니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음악을 지금껏 잘하고 있습니다.

민성 저는 음악을 고등학생 때 시작하여, 어릴 때는 요즘 아이들처럼 가요만 들었습니다. 버즈, SG워너비 등등… 그래서 많은 가요들을 알고 있습니다.



- 05** 라포엠이 생각하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지, 반대로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채훈 공감은 음악이 가진 큰 힘이죠. 그리고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죠.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하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많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른들에게는 쉽게 배울 수 없는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게 음악의 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감정과 세상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저희 또한 잊고 지내던 순수함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시금 회상하게 하죠. 모두에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민성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게 음악으로 힐링해 주어야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배워야지요ㅎㅎ

COVER STORY



06 음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면, 어떤 활동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라방 때 위스타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멤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음악이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지)

채훈 현장에 봉사활동을 나가보고 싶네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훈 아이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성 봉사활동??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07 음악 외에도 각자 가진 숨겨진 재능이나 특별한 취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를 무대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을까요?

채훈 저는 유일한 취미가 사진입니다. 나중에는 공연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갤러리 같은 콘서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훈 한평생 음악만 했던 터라 다른 취미생활은 잘 갖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중입니다 :) 무대에선... 노래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하하하

민성 글쎄요... 운전을 잘하고... 여행을 잘 다니고... 허허허

08 라포엠의 홍보대사 위촉 이후, 위스타트에 라부님들의 사랑이 끊임 없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생일, 크리스마스 등 기념 일을 맞이하여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유채훈님의 도서도 후원해주셔서 위스타트의 연말이 정말 따뜻하고 풍성했어요! 팬들과 함께 이룬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팬들을 위해 특별히 도전하고 싶은 콘텐츠나 이벤트가 있을까요?

채훈 팬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기부활동을 해오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팬들과 함께 현장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것도 해보고 싶네요.

성훈 저희도 홍보대사를 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된 것처럼 팬분들도 저희를 통해 아시면서 함께해 주시고 계셔서 책임감도 생기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팬분들이 참여하는 컨텐츠도 한 번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민성 맞습니다. 라부분들의 끝없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사활동???ㅎㅎㅎ

09 라포엠 멤버들 중 서로에게 '이런 점은 내가 진짜 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채훈 다른 것보다 저는 멤버들이 노래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멤버들이 평생 노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하하하

성훈 멤버들 한 명 한 명의 노래를 들으면 그냥 팬이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하

민성 무조건 노래!!!! 노래 너무 잘합니다ㅜㅜㅜ

라포엠



MIRROR

10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올해 라포엠의 계획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채훈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왔네요. 모두들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라포엠은 올해도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웃는 일이 더 많이 있으시길 저희 라포엠이 함께 응원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바쁘게 움직일 라포엠 기 대해 주세요!

민성 올해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라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계획들이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
라포엠 박기훈 님은 잠시 활동 휴식기에 들어가셔서 세 분의 인터뷰 내용만 담았습니다.

Servus!(제어부스)

이진민 작가



인상적인 프랑스 인사말을 만났다.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Quel est ton tourment?)” 독일에 살지만 옆 나라 말은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 밖에 모르는 나로서는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는데, 대놓고 막게 고통을 물어보니 새삼 마음을 두드렸다. 덕분에 매일 기계적으로 꺼내는 인사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타인의 고통을 묻고 공감을 하는 것이 인사의 의미였구나. 인사는 나라마다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안녕(安寧)은 탈 없이 편안한지 묻는 말이다.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묻는 것과 결이 같다. 문지혁의 소설 『초급 한국어』에는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인지 묻는 미국 학생들에게 “Are you in peace?”라고 답하는 주인공이 나온다. 우리는 매일 상대의 평화를 살피는 사람들이다. 앞선 프랑스어 인사가 직접적으로 고통을 물어보니 마치 얼음물에 손을 담근 것처럼 새롭게 느껴졌지만, 실상 우리가 무수히 건네 온 인사들은 온도감이 좀 미지근할 뿐 물

이라는 본질은 같다. 국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의 아침과 낮이, 저녁이, 밤이, 아름답고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인사를 나눈다. 네팔에서 온 친구가 알려 준 ‘나마스테’는 내 영혼이 당신의 영혼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 지인은 “Pura vida!(Pure life!)”란 인사말에 끌려 코스타리카 여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도대체 그런 인사를 매일 주고받는 사람들의 나라는 어떤지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 인사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들인지.

나는 독일 남부에 사는데, 이곳엔 특별히 쓰는 인사말이 따로 있다. “Servus(제어부스)!” 우리말 ‘안녕’처럼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쓴다. 그런데 이 말이 참 특이하다. 영어로 노예나 종을 뜻하는 slave, servant의 라틴어 단어에서 왔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노예!”라고 인사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사실을 처음 듣고 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했다.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제어부스는 “저



는 주님의 종입니다” 같은 성서 속 표현에서 기원을 찾는다. 서로에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섬기고 살필게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너를 마치 신처럼 여기고 나를 낮추겠다는 마음이 든 인사라니 뭉클하다. 전국 노래자랑에 벼금가는 전국 갑질 자랑으로 도배된 사회면 뉴스에 지친 마음에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잘 건네지 않는다. 흥흉한 일이 많다 보니 타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혹여 사건의 씨앗이 될까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인사를 나누는 문화권에 살다 보니 알게 되었다. 낯선 이에게 다정한 인사를 받는 일이 내 기분과 내 하루를 정말로 근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전거를 타고 밀밭길을 지나는 아저씨가 싱글벙글 건네는 인사를 받으면 산들바람이 곁을 스쳐간 기분이고, 골목에서 마주친 아이들이 귀여운 입술로 “할로!”하면 내 안에 불이 반짝 켜지는 느낌이다. 사실 같은 독일이라도 도시에선 인사를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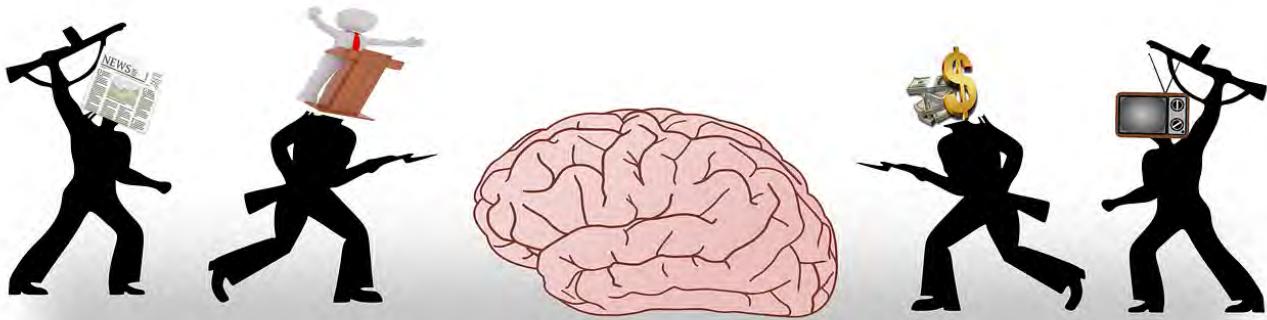
네기 어렵다. 그래도 적어도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나누고 다정한 눈길을 보낸다. 낯선 이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미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믿음,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 신뢰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국어사전에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다. ‘人事’라는 한자어를 공유하는 두 단어가 있었는데 엎어보니 묘했다. 하나는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표함.”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그러므로 인사를 건네는 일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루에 만나는 많은 이들이 내 곁에서 무탈히 지내줌으로써 우리는 평온을 얻는다. 인사를 건네는 일은 이들에 대한 존중이자, 그들의 일상을 향한 응원이다. 알지 못하는 타인이라 해도 – 실은 모르기에 더욱 – 인사를 나누는 일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공동체의 일원인 동료 시민에게 안녕을 물는 일. 스스로를 낚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가 고통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얇은 미소라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
이진민, <모든 단어에는 이야기가 있다>
(동양북스)의 일부를 다듬어 새로 썼습니다.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김유석 건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



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희망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에 힘입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던 수많은 질병이 극복되었고, 이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인간은 과거에 비해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란 질병과 허약함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physical), 정신적(mental), 사회적(social)으로 안녕(well-being)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병이 없이 튼튼한 몸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과, 가정, 학교, 직장, 교우관계 등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비로소 건강하다고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의학이 발달하고 운동과 식이 조절과 같은 건강 증진 활동이 발전하였으나 이는 주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의 요소 중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사람은 쉽게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통증, 면역력 약화, 수면 장애, 식이 장애 등의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인의 우울증 유병률과 자살률이 높다는 데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뇌 건강

많은 분들이 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손상된 뇌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서 더욱 걱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미 뇌 손상을 겪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두 번 다시 병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뇌혈관의 문제로 갑작스런 뇌 손상을 입는 뇌졸중 환자들은 이후의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 장기간의 재활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병전에 평생 동안 잘 사용하던 몸이 말을 잘 안듣는 경험은 쉽게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치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순조로운 재활 치료의 수행을 방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예후를 나쁘게 합니다. 실제로 진료과정에서 지지부진한 재활 성과를 보이던 환자에게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했을 때, 보다 좋은 예후를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건강이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해 점진적인 뇌 손상을 받는 치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성 우울증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몇 달간의 급격한 인지기능 감소를 호소하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적이 없던 환자였고, 일반적인 진행 양상에 비해 지나치게 급격히 진행된 증례였음에도 불구하고 MRI를 비롯한 검사에서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분은 배우자와 단둘이 살다가, 1년전 사별하고 혼자 지난 이후부터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우울증 상담과 치료를 병행한 결과, 인지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슬픈 감정, 사고장애, 집중력 부족, 절망감, 활동성 저하 등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에는 의욕과 집중력이 저하됨에 따라 기억력도 감소합니다. 이런 증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마치 치매와 같이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감퇴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노인성 우울증의 경우 치매와 증상만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단, 치매처럼 뇌의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조기에 진단하여 우울증을 치료해주면 인지기능도 함께 개선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혹시 우울증은 아닌지, 혹은 이미 치매로 진단이 되었더라도 우울증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에 예시한 특정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뇌 손상 환자는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정신적인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 기능의 회복과 신체화증상의 감소와 같은 예후의 개선을 위해 중요합니다.

건강한**뇌 만들기**

2024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의 '올해의 단어(Word of the Year)'로 '뇌 썩음(brain rot)'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소셜 미디어에서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함으로써 두뇌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겪는 경험, 습관과 환경적인 자극이 뇌의 기능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뇌 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병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취약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글자로 얻은 정보를 생각을 통해 장면으로 재조합 해야 하는 책과 비교해 볼 때, 영상과 소리를 통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고와 학습 기능을 저해하므로, 이는 뇌 건강에 보다 취약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의 병행, 절주와 금연, 수면 위생 등의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을 관리해 줘야 합니다. 이미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말초 혈관 질환 등을 진단받은 분이라면, 이차예방을 위한 약물 복용이 필요하며, 이는 위의 중증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일상 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울하거나 충격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에서 최대한 순조롭게 벗어나도록 해야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인지기능의 개선과 스트레스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 길게 늘어놓은 이야기이지만, 사실 너무 당연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뇌 건강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예방하고, 만약 뇌 손상을 겪게 되더라도 현명하게 그 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을 지키는 힘 ‘회복탄력성’

이연희 정신건강전문요원

1955년, 미국의 소아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18세까지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아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의 삶을 집중 분석한 결과, 3분의 1인 72명이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 연구진은 그들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는지를 분석했고,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단 한 명이라도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즉,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하는 존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람은 그 힘을 바탕으로 역경을 견디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학에서는 레질리언스(resilience), 즉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역경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시련을 겪은 후 더욱 성장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취업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단순한 일상의 스트레스 까지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한다. 그리고 같은 역경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를 딛고 더욱 강한 사람이 된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스트레스와 역경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또한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진다. 대표적인 예로 『해리 포터』의 작가 J.K. 롤링을 들 수 있다.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으며 미혼모로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를 극복하고 책을 집필했다. 그녀는 12번이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사례는 회복탄력성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회복탄력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충분한 수면과 운동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 내성이 낮아진다. 이는 결국 부정적인 감정에 더 쉽게 휘둘리게 만들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게 만든다. 따라서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을 하면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하게 된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이 우울증 치료제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최소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그 사건이 정말로 인생을 망칠 만큼 큰 일인지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지 치료(CBT)에서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해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정적인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회복탄력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버드의 가젤 박사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번아웃을 겪던 의사들이 다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회복탄력성은 단순한 심리적 개념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국, 회복탄력성은 우리가 역경을 마주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돋는 힘이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안녕”을 묻고, 헤어질 때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전쟁과 기아 속에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인사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 상대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기른다면,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행복하려면 작지만 선한 행동을 반복하라

임종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인은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 개인의 심리, 소득, 주거 상황 등 삶의 여건에 따라 답은 다르다.

2024년 3월 뉴스에 등장하는 ‘국제 행복 지수’라는 지표에서, 한국은 143 개국 중에 52위이었다. 이 순위는 30위권인 싱가포르나 대만보다 훨씬 낮으며, 필리핀(53위), 베트남(54위), 태국(58위), 말레이시아(59위) 등과 비슷하다. 한국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이는 우울한 결과다. 시장조사회사인 ‘Ipsos’가 2024년 한국을 포함해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 지수(Global Happiness)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한국인 중에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48%로 꼽찌였다. 1위는 네덜란드로 85%가 행복하다고 했으며, 하위권인 일본도 57%가 행복하다고 답했다. 헝가리와 한국만이 유일하게 행복 비율이 절반을 밟았었다. 이 조사에서 2011년에 한국의 행복 지수는 71%로 양호했으나, 13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왜 한국인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하고, 주변 환경이 여유와 편안함을 주어야 한다. 주변 환경은 자연 풍광, 개인의 심리, 여가 활동 등을 말한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거나, 명상이나 요ガ를 하

거나, 동호회 축구나 친목 모임에 나가는 이들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다. 연구자들은 주변 환경이 개인이 행복함을 느끼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안녕(寧安)’ 또는 영어로 ‘well-being’이라고 정의한다. 사람을 만날 때 건네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편안한지 또는 행복한지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참 좋은 인사말이다. 편안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건강에 별로 문제가 없으며 살면서 행복함을 자주 경험한다. 따라서 ‘내가 행복한가’라는 질문은 ‘살면서 나는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가’로 고쳐 묻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의 유명 기고가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는 행동이 인간의 심리를 바꾼다고 소개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해보면 자신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작은 시도가 익숙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을 위해 매일 달리기를 한다든지, 매주 등산을 하다보면 이 반복된 행동으로 내면의 응어리나 스트레스가 점차 풀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자신은 여전히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끼는



한국인이 많다. 안녕(well-being)은 개인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직장, 친구, 동호회 등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편안함을 자주 느껴야 경험할 수 있다. 자기 생각이나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 등과 불편하게 지낸다면, 반쪽짜리 행복에 그칠 것이다.

승진이나 부동산 투자,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에 매달리기보다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 이 고민을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질적 성공보다 삶의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긍정의 마음으로 이웃이나 타인을 선하게 바라보고 대하려는 행동은 행복 함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 행동은 대단한 수준이 아니며, 정말 작게 시작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 행동의 결과를 누리는 타인에게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공동주택에 몰려 사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승강기에서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거나 간단한 눈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많지 않다. 승강기를 타거나 내릴



때 눈인사나 짧은 인사말을 먼저 해보자. 순간 서먹한 분위기보다 짧지만 훈훈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작지만 반복하는 인사는 이웃과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윤활유가 된다.

각종 소모임이나 지역 사회 단체에서 자원 봉사의 기회를 찾는 자세도 행복 함을 경험할 좋은 시도다. 아주 노동자가 한국에 정착하도록 한국어와 생활 요령 등을 알려주는 일, 지역에 사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자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돋는 일, 소모임 행사 준비에 적극 참여하는 일 등 공동체에 봉사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들 사례처럼, 나보다는 타인이나 공동체를 중시하는 행동을 다양하게 응용하면 좋은 효과가 일어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먼저 건너라고 손짓하면, 보행자는 미소와 고마움의 표시를 한다. 그러면 잠시나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은 금액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기부하는 행동도 좋을 것이다. 자신의 기부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편안함을 체험할 수 있다. 쇼핑센터나 마트 등 공동 시설에서도 타인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뒷사람을 생각해 출입문을 잠시 잡아주는 배려는 뒷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이 배려를 이미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자주 자연스럽게 하면 좋다. 이런 행동은 뒷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나만 갈래’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공동체 의식을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에 소개한 미국 언론인 브룩스는 좋은 직장이나 성공이 인생에서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라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선한 의식을 중시하는 두 번째 산을 올라야 한다고 했다. 산 정상에 오르려면 첫발을 떼야 하고 이 걸음을 계속 내디뎌야 정상에 오른 뒤에 무사히 내려 올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작지만 선한 행동을 일상에서 자주 반복해 보자. 정도는 다르지만 자신의 내면에 행복감과 편안함이 밀려오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이라는 말

이주형 SBS 문화부 영화담당 기자



시절이 하수상한 요즘, '안녕'이라는 말을 주제로 이런 저런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불현듯 '안녕이라는 말 대신'이라는 노래 가사가 입가를 맴돈다.

안녕이라는 말 대신

그대 창에 커텐을 내려도
너와 나 사랑했던 추억의
커텐만은 내리지 말아 줘요…

1988년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은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의 첫 소절이다. '안녕이라는 말 대신'을 검색해보니 가수 비와 최유리, 써니 힐 등도 이 문구를 제목으로 한 노래들을 불렀다. '안녕'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말이지만, 누군가와 헤어질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니까. '안녕'은 생각만큼 간단한 말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개봉했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룸 넥스트 도어』는 예술영화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이 영화에는 틸다 스윈튼과 줄리안 무어라는 걸출한 여배우들이 나와 죽음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차분하고 우아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룸 넥스트 도어』의 주인공인 마사(틸다 스윈튼)는 뉴욕타임즈의 베테랑 종군 기자다. 하지만 지금은 자궁경부암 3기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앞으로 몇개월, 길어 봤자 1년 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마사는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존엄있는 죽음을 원한다.

난 잘 죽을 권리가 있어. 존엄을 지키며 퇴장할래. 깨끗하고 깔끔하게.

다크 웹에서 안락사 약을 구한 마사는 오래 전 함께 일했지만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작가 잉글리드(줄리안 무어)에게 자신의 이별 여행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한다. 자신이 죽을 때 옆방[룸 넥스트 도어]에 있어 달라는 것이다. 『룸 넥스트 도어』는 全美도서상 수상 작가인 시그리드 누네즈의 『어떻게 지내요』를 원작으로 한다. 이 소설의 원제는 '당신은 무슨 일을 겪고 있나요?' (What are you going through)이고, 프랑스어판 제목은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 (Qui est donc ton tourment?)이다.



왼쪽부터 시그리드 누네즈 소설의 한국어판, 영어판, 프랑스어판



잉그리드를 연기한 틸다 스윈튼과 마사를 연기한 줄리안 무어. 왼쪽부터 |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가요?'(Quel est donc ton tourment?)이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가 1942년에 쓴 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고 썼을 때 시몬 베유는 자신의 모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그 위대한 질문이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Quel est ton tourment?) -『어떻게 지내요』122쪽

우리가 나누는 “안녕하세요?”라는 평범한 말에는 실은 ‘어떻게 지내요?’,'당신은 (요즘) 무슨 일을 겪고 있어요?’,'당신은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말이 숨어 있다. ‘안녕’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물론 모든 고통은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이기에, 우리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어 결국 “그럭저럭이요”하고 얼버무리고 말지만.

소설가 한강도 타인의 고통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고 그래서 결국 “같이 겪자”는 마음만 남아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타인의 고통을 감지해서 자신의 고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건 인간의 고귀함을 증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도 했다. 그렇게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있다는 선언과 같은 말이다.

잉그리드는 결국 마사의 마지막 ‘안녕’에 동행하기로 한다. 며칠 뒤 마사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노란색 수트를 입고 오후의 산들 바람을 맞으며 테라스의 휴식용 의자에 앉아 마사와 세상에 ‘안녕’을 고한다.

마사에게.

오늘은 너무 아름다운 날이라 떠날 때가 온 것 같더라.
네가 아래 방에 없어 다행이야.

비록 원래 계획은 그거였지만. 난 항상 즉흥적이잖아…
넌 타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나와 동행해줬어.

*
이 글은 영화칼럼 〈씨네멘터리〉 “작별이 온다... 거장의
‘옆방’에서 한강의 마음을”을 바탕으로 다시 쓰였습니다.

남해 동네 빵집에 일어난 작은 기적

손민호 중앙일보 레저팀장



남해 '행복 베이커리' 김쌍식 대표. 날마다 등굣길 아이들에게 공짜 빵을 나눠주는 빵집 아저씨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20년 넘게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여행기자 눈에도 팔도강산은 아름답습니다. 여행기자만 아는 비경을 소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서입니다. 사람이 있어서, 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지난해 방영된 tvN 예능 프로그램에 ‘언니네 산지 직송’이 있지요. 염정아 배우를 비롯한 연예인 4명이 경남 남해에서 남해 사람처럼 생활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그 방송에서 염정아가 남해까지 왔으니 빵집에 줘야 겠다며 식혜를 담그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식혜를 빵집에 갖다 줬지요.

그 빵집이 ‘행복 베이커리’입니다. 남해 초등학교 어귀 골목 모퉁이에 들어선 작은 동네 빵집입니다. 염정아가 행복 베이커리를 떠올린 건 이 빵집 주인이 아침마다 등굣길 아이들에게 공짜 빵을 나눠주고 있어서입니다. 빵집 주인 김쌍식(52) 씨가 선행을 시작한 게 2019년이니까 올해로 7년째가 됐네요.

저에게 행복 베이커리는, 여행자로서 자긍심 같은 걸 느끼게 해준 고마운 곳입니다. 이 집을 맨 처음 소개한 주인공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랑 맞습

니다. 2021년 초여름 코로나 사태로 매일매일이 우울한 때였습니다. 다른 취재로 남해를 내려갔다가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애들 불들고 빵을 나눠주는 이상한 빵집이 있다고요.

이튿날 아침,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맞춰 빵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을 목격했습니다. 빵집 주인이 부지런히 빵을 내다 놓으면, 등굣길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빵을 집어 들고 학교로 갑습니다. 빵 갖다 놓느라 바쁜 중에도 빵집 주인이 연신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들, 하나 더 먹어라” “딸, 오늘은 늦었네. 얼른 갖고 가라.” 아이들은 꾸벅 고개를 숙이고 다시 등교를 재촉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마친 뒤, 김쌍식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린 시절을 들었습니다.

“집안이 망해 먹을 게 없었어요.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가면 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빵집을 열면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꼭 빵을 주겠다고. 가게도 일부러 학교 앞에 얹었어요. 빵을 내 월세 40만 원짜리 빵집을 냈지만, 새벽마다 아이들에게 줄 빵을 먼저 굽습니다.”

이 사연을 고스란히 2021년 6월 30일 자 중앙일보에 보도했습니다. ‘등굣길 공짜 빵 1년 줬다… 월세 살아도 행복한 빵식이 아재’ ‘빵식이 아재’는 행복 베이커리 김쌍식 대표의 별명입니다. 제가 붙여줬지요. 이후로 그는 빵식이 아재로 살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기적과 같은 일이 잇달았습니다. LG그룹에서 빵식이 아재에 ‘LG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의인이나 받는 상을 빵식이 아재가 받은 것이지요. 빵식이 아재의 의인상 수상 소식을 보도하자 이번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빵식이 아재를 출연시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MC 유재석씨가 꼭 모시면 좋겠다고 했다지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빵식이 아재가 출연한 이후 행복 베이커리는 눈에 띄게 손님이 늘었습니다. 이른바 ‘돈풀’을 당한 것이지요. 전국 방방곡곡의 손님이 일부러 이 외진 빵집까지 찾아와 빵을 사 갔습니다. 염정아 배우가 손수



행복 베이커리에서 공짜 빵을 밥고 좋아하는 남해 초등학교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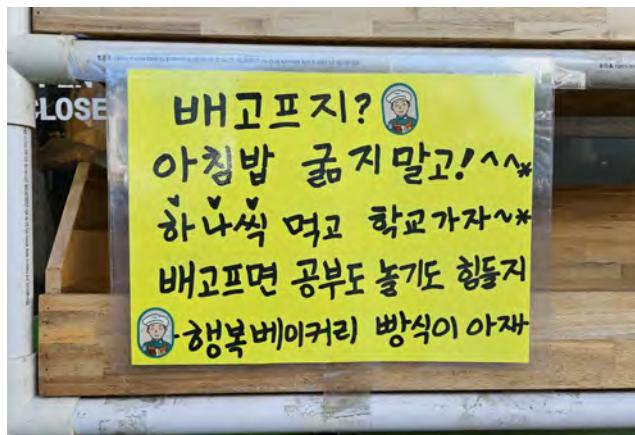
2024년 제과회사 오리온은 ‘초코파이’ 생산 50주년을 맞아 남해 행복 베이커리의 미담을 담은 초코파이 200만 개를 제작해 판매했다.

식혜를 담가 갖다 준 것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작은 기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빵식이 아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수여하는 ‘어른이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빵식이 아재의 사연을 담은 초코파이 200만 개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 베이커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빵식이 아재는 아침마다 등굣길 아이들에게 줄 빵을 굽고, 행복 베이커리는 전국에서 ‘돈풀’내려 찾아오는 손님으로 온종일 붐빕니다.

남해에 내려가시면,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남해 초등학교 어귀 골목 모퉁이의 행복 베이커리를 찾아가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조우하게 되실 겁니다.



남해 행복 베이커리 앞에 써 붙인 공짜 빵 안내문.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빵식이 아재. 사진 tvN

안산 중부 라디오

안산 중부지역아동센터 박지수



아이들과 센터에 하루종일 함께 있으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구들과 센터에서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나누는데도 매일 매일 새로 나눌 이야기가 어찌나 많은지, 한시도 쉬지 않고 재잘재잘 웃음꽃이 넘치는 대화들을 듣고 있노라면 재미있는 라디오를 듣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도 질리지 않는 라디오지만 때로는 요즘 들어 아이들의 대화 속에 표현이 조금 인색해진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밈’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많아지고 웃긴 유행어의 등장으로 언뜻 들으면 말이 다양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말로 인해 마음을 명쾌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둥뚱그려지는 말이 많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작년 아이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킹발네.”라는 문장을 재밌을 때도 화날 때도 속상할 때도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의 이런 행동이 날 화 나게 해.” “방금 한 말 굉장히 재치있었어.”와 같이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말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표현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무렵, 센터에서 2024년 인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한 회차, 한 회차 거듭할수록 제가 느꼈던 아쉬움이 인성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보람을 맛보았습니다.

인성교육 초반에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아이들이 행 복했던 시간을 찍은 사진을 소개하는 ‘해피타임’ 활동 때는 여전히 평소에 쓰는 유행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로 이어진 다음 회차의 활동에서 나는 누구인지 설문지를 자세하게 적어보았던 ‘복면친구’, 햄버거를 만들고 고마움과 미안함과 감사함을 담은 편지를 적어보았던 ‘마음을 담은 샌드위치’, 제시어 카드를 그린 그림을 보고 서로 의논해서 맞추기 게임을 했던 ‘반만 닮아보’, 의사게임을 하며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양보해주지도 않아도 즐겁게 게임했던 ‘미안해 고마워’, 자성예언을 적은 케이크 만들었던 ‘선물 이야’ 회차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할 때는 장난치고 놀 때에 보였던 장난스러움과 달리 제법 진지함을 보여주기도 했고, 친구와 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고 의견이 달라도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내적 성장들을 이루어가면서 활동 회차가 쌓일수록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스운 유행어에 기대어 표현하지 않고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을 선택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모습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올해 2025년 겨울 방학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센터에 등원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아동들을 보면 작년 한 해도 많이 자랐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자칫 마음을 오해할 수 있는 단순한 표현 대신 자기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하여 다툼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줄였고, 즐거웠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전보다 더 다채로운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평소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서툴렀던 아이들이 이제는 센터 자치회의 시간에 의젓하게 생각한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인성교육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프로그램 시간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이후에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성장을 가져다 준 것 같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올 한해에도 더욱 활기찬 센터 생활을 이루어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성장의 씨앗

큰사랑지역아동센터 황경숙 센터장



아이들의 성장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업적인 성취는 중요한 목표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과의 경험은 이러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줬습니다.

처음 만난 그 아이

몇 달 전, 아이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다니엘, 중학생이었고, 수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쉽게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곤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저는 어차피 못해요”라는 말을 습관처럼 뱉어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자신감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통해 다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그렇게 믿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칭찬과 격려

인성수업 시간,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못해요”라는 말을 “아직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을 때 다니엘은 처음에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 작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걸 보니 대단해”라고 말하자 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학 문제를 풀 때 다니엘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틀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문제를 맞힐 때마다 스스로 “할 수 있구나”라고 말하며 작은 성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 이거 좀 어려워요”라는 말을 하며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아이, 채은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조용하고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던 아이, 채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종종 안타까웠습니다. 채은이는 베이킹을 좋아했는데, 인성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함께 쿠키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너의 아이디어 정말 좋은데? 친구들에게도 알려줄래?”라는 말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채은이는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이 만든 쿠키를 자랑스러워하며 나눠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고, 그 후로도 그녀는 수업에서 더 자주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

현장에서 만난 다니엘과 채은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인성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단면일 뿐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속에 긍정과 협력,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인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단지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야만 아이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수업을 마치며 아이들의 밝아진 눈빛을 보며 다짐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거야.” 인성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늘봄학교에서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중원 과장



최근 전라남도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위스타트 인성교육을 시작하며 새로운 교육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이 과정은 지역 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인성교육은 단순히 예의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방법을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보였던 아이들의 낯선 반응은 점차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친구와의 협력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자서



전'이라는 활동에서는 친구가 그려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한 요리 활동인 '우리 마을 만들기'에서는 팀워크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며 과제를 완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돋보였던 점은 참여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협력적 태도의 발전입니다. 참여 아이들은 점차 밝아진 표정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변해갔으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성교육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과제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재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고, 돌봄 교사와의 협력이 부족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히 한 결과,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늘봄학교’의 인성교육은 단순한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전라남도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WE START

사업현황

2024 국내 총 지원 아동수

8,895명

국내아동 통합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복지, 교육, 건강 3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가족·지역사회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통합 사례관리 현황 570 명

교육 참여 현황 5,243 명

지원 사업 현황 사례관리, 학습지원, 파랑새 봉사단 운영, 금융교육 제공 등

주요 캠페인 현황 냉난방용품지원,
명절 및 기념일 선물 지원 등

인성교육 지원



경제적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들의 마음까지 돌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개인의 인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

인성교육 참여 아동 1,397명

일대일사례 지원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1:1 사례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된 후원금으로 필요한 물품과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모금된 후원금은 대상 아동과 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가로 모금된 금액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지원 가정 7가정 / 49명

* 지원 인원에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수 포함

제대로된 한끼



결식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균형 잡힌 '제대로 된 한끼' 식사를 지원합니다.

* 아동 및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급식, 특식, 간식, 식료품 등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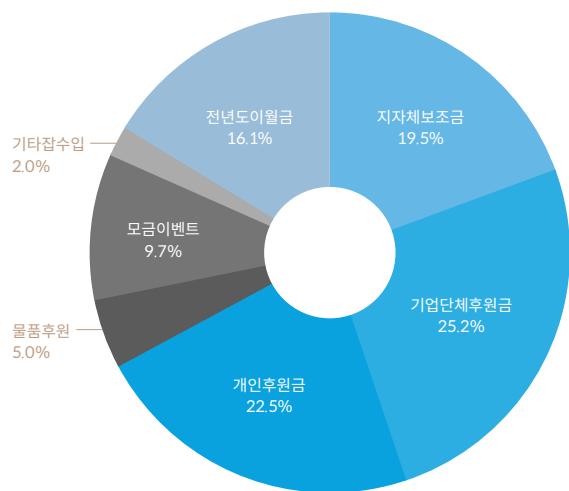
지원 아동 1,636명 / 40,721끼

WE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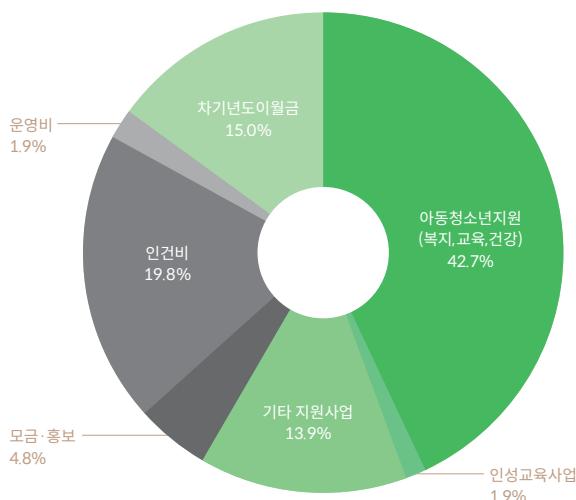
재정보고

2024년 위스타트는 후원자님들과 함께 경제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4년 수입



2024년 지출



구분	금액(원)	비율(%)
지자체보조금	604,000,000	19.5
기업단체후원금	782,005,774	25.2
개인후원금	697,522,244	22.5
물품후원	154,375,727	5.0
모금이벤트	301,951,445	9.7
기타잡수입	63,605,501	2.0
전년도이월금	499,932,599	16.1
합계	3,103,393,290	100

구분	금액(원)	비율(%)
아동청소년지원(복지,교육,건강)	1,325,899,725	42.7
인성교육사업	58,094,950	1.9
기타 지원사업	432,123,825	13.9
모금,홍보	149,647,654	4.8
인건비	614,246,226	19.8
운영비	59,421,618	1.9
차기년도이월금	463,959,292	15.0
합계	3,103,393,290	100

위스타트 News

1월

새 학년 맞이 및 독서 활동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2024년을 맞아 아동들은 겨울방학 동안 총전의 시간을 가지며 새 학년을 준비했다. 또한, 학교 도서관을 방문해 직접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경험을 하며 독서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혹한기 물품 지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56가정을 대상으로 겨울 방한 물품을 지원했다. 따뜻한 이불, 난방용품, 난방유 등을 통해 가정에 온기를 전했다.

**3년째 이어지는 루카랩의 후원**

위스타트

루카랩은 2022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1,000개 이상의 다이어리와 캘린더를 후원해왔다. 2024년에는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삼척, 해남 등 전국 6개 기관을 통해 물품이 전달되었으며, 센터별 맞춤 선택과 전국 배송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혹한기 지원 사업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강진군 취약계층 31가정에 이불 세트, 바디로션, 핫팩을 전달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위스타트의 따뜻한 나눔으로 각 가정에 온기를 전했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자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심리·정서 안정과 상호 작용 향상을 위해 음악치료실을 확충하고, 모래놀이치료 운영 물품을 추가 구비하여 상담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도록 했다.



위스타트



2월

연극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연극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한 아동들은 웃으며 즐겁게 활동에 참여했고, 연극 속 주인공이 되어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설 명절 선물 지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60가정에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식료품을 준비하며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나눴다.



위탁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남, 진도, 강진군의 위탁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요보호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돋고, 양육자로서의 고정관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마음코칭 - 'Hi, Myself'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정서코칭 전문가, 친구들과의 모임 안에서 청소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마음코칭 시간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대화와 발표, 자연스러운 교류 활동 속에서 자신만의 강점과 관심을 발견하고, 이것이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방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청자축제, 찾아가는 돌봄교실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강진 청자축제에서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영·유아 가족을 지원했다. 아이들은 그리기, 만들기, 종이접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마음튼튼)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0개 기관 청소년 141명을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마음튼튼'을 운영했다. 음악치료 전문가와 함께 심리·정서 훈련과 예술 활동을 병행하며, 회복탄력성·자기조절 능력·긍정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갈등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으며,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서적 성장을 돋고자 한다.



3월

위스타트 인성교육 실시

봄봄센터

겨울방학 동안 시설 아동들과 집중 인성교육을 진행했다. 연령에 따른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와 차별을 배우며, 도움을 주고받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인격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



핫시즈너, 동대문엽기떡볶이 밀키트 300개 후원

위스타트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핫시즈너)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떡볶이 밀키트 300개를 위스타트에 후원했다. 기업 임직원들은 자원봉사로 밀키트를 직접 포장하며 정성을 더했다.



매일유업, 4년째 이어온 유제품 후원

위스타트

매일유업은 2021년부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약 6만여 개의 유제품을 후원하고 있다. 수도권부터 전라남도까지 5개 기관 1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신선한 우유와 요거트를 정기 배송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급식·간식으로 즐기거나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다.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에서 주최한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에 4명의 아동이 참여해 인지 발달 및 정서 지원을 받으며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했다.



카드 뒤집기 게임

삼척SOS통통센터

올해 첫 분기 인성 프로그램에서는 프로젝터, 컬러 게임, 배경 음악 등을 활용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이미지를 사용해 짹을 이해하도록 돋고,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규칙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진행했다.



새 학기 지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27명의 아동에게 학용품과 책가방 등 새 학기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설렘과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진도군 내 5개 학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진도군 교육지원청과 함께 진도군 내 5개 학교(진도초, 진도중, 진도고, 진도 실업고, 진도국악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긍정양육 팸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배움이 넘치는 배움누리 학습 지원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중3~고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영어와 수학, 국어 과목을 주 2회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청소년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오감 발달 프로그램, 음악놀이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어려운 강진의 영, 유아를 위해 음악놀이 수업을 개강하였다. 음악을 듣고 다양한 타악기 조작과 연주, 놀이를 통해 청각, 시각, 촉각 등의 오감을 발달시키고, 정서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자기감정을 신체로 표현하며 대근육과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매체치료(미술, 놀이)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유·아동을 대상으로 감각통합 미술·놀이 활동을 활용한 1:1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돋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보호자 상담을 통해 자녀 이해와 문제행동 코칭을 지원하며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4월

유네스코 동아리 '융화'

다솜인성센터

한국폴리텍 다솜고는 충북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되어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유네스코 동아리 '융화'는 캠페인과 부스 운영을 통해 유네스코 가치를 전파하며, 재학생들의 모국(13개국) 세계기록유산을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축제 부스를 운영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동아리 대표 강은주 학생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표창을 수상했다.



학습 코칭 및 연세대 대학탐방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배움누리의 맞춤형 특화사업인 '학습코칭 및 대학탐방'은 청소년이 스스로 학업 및 진로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코칭 프로그램이다. 학습 코칭 및 연세대학교 대학탐방을 진행하였으며 재학생 멘토와 함께한 입시정보와 학습법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독다독 멘토링

3월부터 12월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학생 멘토들이 학습을 돋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아동들의 학교 적응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었다.



연양서부 지역아동센터

딸기 고추장 만들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딸기 고추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상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딸기 고추장 만들기는 고추장의 재료와 우리장의 발효과정을 이해하며, 아이들의 입맛에도 맞는 고추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또래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덕지역아동센터 4~6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규칙 만들기, 협동화 그리기, 정원 만들기 등을 통해 자기 탐색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대인관계 형성을 도왔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은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며 소통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오하임앤컴퍼니의 가구 후원**

위스타트

오하임앤컴퍼니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가구를 후원했다. 기업 임직원들이 사전 실측부터 배송·설치까지 직접 참여해 가구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이들은 새 가구와 함께 깨끗한 공간에서 편안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5월****어린이날 행사 및 모범어린이 표창**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행사장에서 옛날 간식을 제공해 아동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림 속 여행을 떠나자**

삼척SOS통통센터

프로젝터로 다양한 그림과 영상을 선보이며 아이들의 흥미를 높였다. 동서양 명화, 공룡, 동물, 바다 등 몰입할 수 있는 배경 이미지를 활용해 참여를 유도했으며, 앞으로도 즐거움을 줄 다양한 자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밴드동아리, 제천 청소년문화축제 공연 참가

한국폴리텍 다솜고 '다솜 With 밴드'가 2024년 제천시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공연을 펼쳤다. 학생들은 드럼, 베이스, 일렉기타, 키보드를 연주하며 한 달 이상 연습한 곡을 선보였다. 다문화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는 음악을 통해 하나되어 무대를 즐기며 큰 호응을 얻었다.



생활교육 캠페인 운영

다솜인성센터

한국폴리텍 다솜고는 학교폭력 예방, 정리정돈, 언어폭력 예방 등 생활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인사, 상호존중, 가족사랑, 목표 세우기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며, 다문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활한 사례관리 진행을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도담도담 부모교육 진행자 교육'은 양육자가 올바른 양육 태도를 배워 아동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돋는 프로그램이다. 아동 가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배움누리 선배와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중앙대 재학 중인 배움누리 졸업 선배가 대입 준비 중인 청소년들에게 공부 방법과 입시 전략을 공유하는 멘토링을 진행했다. 선배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진로 고민을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3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제3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1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해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강진군 유아·초등 저학년(2012~2020년생)이 참가했으며, 최고상·사랑상·행복상 각 9명(총 27명)과 특별상 3명이 선정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5월 21일 청아중학교에서 474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학교 스타그램'을 공연했다. 학생 참여형 공연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이 사회적 환경에 있으며, 해결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변화가 필요함을 알렸다. 또한, 배우들의 실생활 대화와 게임, 노래로 공감을 높이고 재미를 더했다.

**오늘도 행복해 봄**

봄봄센터

쉼터에서도 어린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화 관람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외식을 통해 특별한 식사 시간을 마련하며 아이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라포엠 홍보대사 위촉**

위스타트

라포엠이 위스타트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이들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공정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돋는 일이 소중하다”며 나눔 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라포엠은 2020년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후원으로 위스타트와 인연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에 앞장설 계획이다.

**청소년 문화탐방 1인1회 문화활동**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배움누리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취향을 존중하여 평소 관심 있었던 문화활동 분야를 직접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탐방 활동을 진행하였다. 미술 전시관람, 향수 만들기 체험, 스포츠활동 등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만의 취향과 기호를 발견, 건강하게 여가와 문화를 즐기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었다.

**Culture day GoGoGo!**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클래식한 관현악 오케스트라를 좀 더 쉽고 친숙한 문화활동으로 접해볼 수 있도록 고양아람누리에서 공연하는 ‘지브리&히사이시조-디오케스트라’를 관람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볼 때 들었던 익숙한 멜로디를 VIP좌석에 앉아 오케스트라 실황으로 들으며,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과 함께 보낸 주말 저녁 힐링의 시간이었다.

**2024 장학생 및 학부모 간담회**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배움누리 청소년 17명이 KB인재양성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어, 장학금 관리와 활용법을 안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며 학업과 재능 개발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산 부모학교 개강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은 강진군만의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 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애와 체험 활동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 내 긍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사업 운영

강진군 육아지원센터는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강진군 내 초등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동들의 음악적 재능 향상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1:1 악기 레슨과 합주 연주 시간을 운영했다.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IBK캐피탈, 저소득 가정 어린이 급식비 지원

위스타트

IBK금융그룹 자회사 IBK캐피탈이 위스타트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급식비 지원금 7천만 원을 후원했다. 이 후원금은 결식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급식, 특식, 식료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IBK캐피탈은 2019년부터 6년째 '제대로 된 한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행복나눔터' 가족운동회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 소통과 화합을 위한 '행복나눔터'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초등학생 가족 70팀(210명)이 참여해 마술·버블쇼, 가족 레크리에이션, 다양한 체험 부스를 즐겼다. 또한, 후원물품(제습기, 전기밥솥, 자전거 등 40여 개)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7월

성교육 및 스포츠 활동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구리시교육사회협의회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성교육을 실시했다. 구리시체육회의 피구 지역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경기도 지역 본선 리그에 진출했다. 또한, 중등 아동들은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에 등록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4 전라남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지난 7월 25일, 전남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라남도 22개 군의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약 10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발표, 남도아이지킴이단 활성화 논의, 강연 등이 진행되었으며,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혹서기 물품 지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무더운 여름철, 55가정을 대상으로 여름용 생필품과 냉방용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가정마다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드렸다.



장흥 물 축제 행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정남진 장흥 물 축제 행사장에서 9일간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긍정 양육 팸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마음 봉사단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서울도시가스 한마음봉사단의 지원으로 청소년들과 영화 관람을 진행했다. 문화적 경험이 적은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보고 싶던 영화를 함께 보며 문화체험과 스트레스 완화의 기회를 제공했다.



제대로 된 한끼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야간돌봄터 이용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돋기 위해 다양한 간식을 지원했다. 농촌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메뉴를 구성해 식문화를 경험하도록 했으며, 직접 간식을 만들며 성취감을 느끼고 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다.



혹서기 지원 사업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여름 대비 냉방용품과 여름용품을 지원했다.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이불 세트와 부모 의견에 따라 선풍기를 구입했으며, 모기퇴치제와 방수 밴드 등을 준비해 농촌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했다.



안전스(safety&school)

정라초 6학년 97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VR체험, 사이버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부스를 통해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인식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강화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8월

여름방학 캠프

초등 2학년부터 6학년 아동들이 참여한 1박 2일 여름방학 캠프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며 함께 식사를 했고, 조별 장기자랑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감정 가면을 쓰고

아이들의 감정 이해를 돋기 위해 연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서 진행했다. 감정 캐릭터 영상과 그림책은 흥미를 높이며 이해를 도왔고, 직접 만든 감정 가면과 활동지는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보호자에게 제공해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감정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삼척SOS통통센터

2024년 여름방학 '제대로 된 한끼'

급식비 지원 사업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들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간편식과 신선식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웹드라마제작 프로젝트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영상제작사가 배움누리를 방문해 영상 제작 직업을 소개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짧은 영화를 만들며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연출, 촬영, 연기, 편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실습을 경험했다.



건강한 여름방학 나기

언양서부 지역아동센터

여름방학 동안 언양서부지역아동센터에서 위스타트 '제대로 된 한끼' 급식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며 건강한 성장과 영양 상태 개선을 도왔고, 즐거운 외식 경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달콤한 여행’ 굼벵이 농장 탐방

강진군 육아지원센터와 강진 탐진 로타리 클럽은 8월 17일 가족이 함께하는 굼벵이 농장 탐방 및 와플·빙수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와플과 빙수를 만들며 정을 나누고, 장수풍뎅이 모양 간식을 체험했다. 또한 농장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꽃뱀이 시설을 둘러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어쩌다 아빠, 육아 골든벨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는 202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어쩌다 아빠 육아 골든벨을 강진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강진, 장흥, 해남 지역 아빠 50명과 가족이 참여, 육아상식·양성평등·공동육아에 관한 성인지 교육과 퀴즈 대회가 진행됐다. 1등 육아달인상은 강진의 이호준 씨가 수상했으며, 강진사랑상품권 20만 원이 시상됐다.



스마트 교실(검정고시)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4년 1·2차 검정고시에서 19명 중 14명의 합격을 이끌었으며, 이 중 4명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센터는 검정고시 대비반, 1:1 멘토링, 교재·인터넷 강의 지원 등을 통해 학업 복귀를 지원했다. 검정고시는 학력 취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돋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지원뷔페

지원지역아동센터

방학이 되면 제대로 된 한끼 사업을 통해 센터에 뷔페가 찾아온다. 아동자치 회의에서 선정한 다양한 음식을 풍족하게 제공하며, 편식하던 아이들도 끝까지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



‘수면밀도’ 아이들을 위해 매트리스 후원

위스타트

수면밀도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트리스 30개를 후원했다. 위스타트의 6개 협력 기관을 통해 전국 30가정에 전달되었으며, 배송 및 설치까지 지원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라도 등 지방 아동들에게도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9월

추석 명절 선물 지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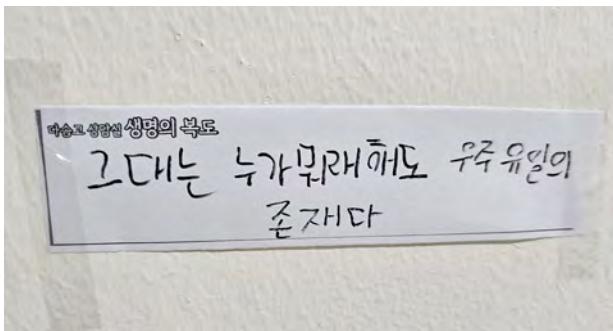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가정에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명절을 위해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친구사랑 캠페인 운영

다솜인성센터

한국폴리텍 다솜고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친구사랑 캠페인을 운영했다. 9월 상담주간에는 '생명의 복도' 캠페인을 통해 복도에 응원 문구를 작성해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했다. 다솜제에서는 친구사랑 문구가 담긴 간식을 나누며 존중과 우정을 확산하는 활동을 펼쳤다.



강진 탐진 로타리 클럽과 예방 인형극 MOU 체결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제로타리 3610지구 강진 탐진 로타리 클럽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탐진 로타리 클럽과 함께 인형극을 활용해 사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적극 관찰하기로 약속했다.



바람떡 만들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추석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쪼물딱쪼물딱 바람떡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쌀 반죽을 주무르고 붙이며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창의력과 정서를 키웠다. 완성된 떡을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추석맞이 독거어르신 명절 선물 나눔 및 가스레인지 안전점검 봉사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서울도시가스 SCG한마음 봉사단 및 배움누리 파랑새 청소년 봉사단이 함께 고양시 내 독거 어르신 10가정을 방문하였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점검 및 노후 된 가스레인지를 교체하고 안부인사와 함께 명절선물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ESG문화놀이체험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야간돌봄터 아동들과 함께 무형문화유산 강강술래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땅 기를 달고 손을 맞잡아 원을 그리며 뛰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 이를 경험하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트로트 아티스트와 팬들의 선한 영향력, 스타투 후원

위스타트

트로트 덕질 플랫폼 '스타투'는 위스타트에 새학기 학용품과 추석 명절 선물을 후원했다. 기부 달성형 투표 이벤트를 통해 모인 후원금과 개인·기업 후원금을 더해 학용품, 책가방 등의 학용품과 스팸, 과일, 고기 등 식료품을 지원하며 풍성함을 더했다.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7명이 참여해 6명이 영어강사, 스포츠지도사, 공예사, 자동차 정비사 등 인턴 과정을 수료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관심을 받는 이 프로그램은 2025년에도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진로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챙김, 마음채움 프로그램

봄봄센터

쉼터에 입소한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해 마음챙김·마음채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상담·인지행동·놀이 치료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돋고, 원예·미술·공예·건강 활동, 지역문화 탐방, 영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성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했다.



10월

위아자 나눔워크 2024

위스타트

위아자 나눔워크 2024는 20회를 맞이하여 서울옥션과 함께하는 명사 기증 품 경매, 성수동 '지구공장'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판매 수익금은 위스타트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코스모스 합창제 참여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경기도 구리시 코스모스 합창제에서 하얀나래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약 4개월간 연습한 노래와 안무를 발표하며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꼈고,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큰 자부심을 경험했다.



제천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다솜인성센터

한국폴리텍 다솜고 축구동아리 다솜FC가 2024년 제천시장기 생활체육 축구 대회 고등부에 참가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뛰며 세명고, 제천연합팀과 경기했으나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어울리며 소통과 화합을 경험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5개군이 함께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도아이지킴이단 및 지역주민 1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현직 수사관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와 처벌 수위를 이해하고,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구축 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수능 및 사회진출(취업) 응원데이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수능과 사회진출(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배움누리 고3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수능·사회진출 응원데이를 진행하였다. 서울도시가스 SCG한마음 봉사단의 응원 선물 지원과 더불어 봉사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배움누리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커피 트럭

연양서부 지역아동센터

지난 10월, 연양서부 지역아동센터는 커피트럭 행사를 개최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초청하고 따뜻한 차와 쿠키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부모들의 고충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했다.



청자로타리와 함께하는 인권지킴이들의 “함께해요 환경사랑”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인성과 환경사랑을 배우는 활동을 진행했다. 축제장에서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관광객에게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여자들에게는 뽁기를 통해 기념품을 증정했다.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 미디어 사용 습관 점검 및 소통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푸드테라피(피크닉 도시락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간 긍정적인 감정 교류와 의사소통을 돋는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11월

음악 활동을 통한 성장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 중학생 아동들이 악기 연주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성취감을 경험했다. ‘구리시청소년 문화의 집’ 연주실을 대관해 연주 영상을 촬영한 결과, 경기북부지원단 특기적성 우쿨렐레 발표회에서 서정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완도군 여성단체군민참여단과 함께 2024년 11월 11일 청산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진행했다. 도서·산간 지역 아동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제18회 전라남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전라남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남경찰청,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모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긍정양육 문화 확산 및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원창 이주림 화백의 '365일 긍정양육'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기념사, 유공자 표창, K-TIGERS 태권도 공연이 펼쳐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진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강진군과 함께 강진 내 5개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남동초등학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남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등굣길에서 긍정양육 팜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마음으로 가는 소풍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마음으로 가는 소풍(김밥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친구에게 주고 싶은 김밥과 자신이 먹고 싶은 김밥을 만들며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은 나눠 먹는 즐거움을 느끼며, 김밥의 맛에 감탄하며 기쁨을 표현했다.



제5회 아빠 육아 사진전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아빠의 동등한 양육 참여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육아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주관, 한국전력강진지사·강진우리신문 후원으로 40가정 69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5작품이 선정되었다.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을 위해 노력 하려 한다.



탐진로타리클럽과 함께하는 날아라 드론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강진탐진로타리클럽 후원으로 강진군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드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드론 기초를 배우고 직접 조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은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합아웃리치(수능)

고등학교 8개교 및 학교 밖 청소년 430명을 대상으로 수능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1388청소년지원단의 후원으로 과자세트, 링크 담요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의 대학 합격과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봄봄 보호아동 통합사례회의 실시

봄봄센터

보호 아동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삼척시청,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여자고등학교 등 5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각 기관이 보호 아동을 위한 역할과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위스타트 20주년 기념식 '우리, 함께'

위스타트

상암동 중앙일보빌딩에서 약 300명의 후원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행사는 어린이 합창단 오프닝 공연, 위스타트 20년 발자취 돌아보기, 김수길 회장 환영 인사, 감사패 전달식, 홍보대사 라포엠 축하공연 등 1시간 동안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5년째 이어지는 따뜻함(feat. 연탄런)

위스타트

성북구 정릉골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 이상학 KT&G 부사장, 김수길 위스타트 회장,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탄은행을 통해 350여 가정에 7만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그 중 24가정에는 연탄 6,000장을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12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법조인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직업을 탐색하며,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마을 만들기

삼척SOS통통센터

24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쿠키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설명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아 마을을 만들며 상상력을 펼쳤다. 완성된 작품을 소중히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뜻깊은 마무리가 된 프로그램이었다.



지역별 주요 연계 기관 방문 사례회의

전남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 완도군에서 사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아동 보호 서비스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사례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를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연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별별산타 선물 지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말을 맞아 39명의 아동에게 장난감과 학용품 등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원하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했다.



사랑의 김장나눔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한국카네기CEO클럽 고양총동문회는 12월 '한마음 김장봉사'를 진행해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에 김치를 전달했다. 회원 15명이 참여해 약 300kg의 김치를 담갔으며, 이를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청소년 가정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라포엠 팬카페, 위스타트에 전한 따뜻한 마음

위스타트

라포엠 멤버들의 팬카페가 위스타트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팬카페 '라 피암미'는 박기훈의 생일을 기념해 300만 원을 기부하며 아티스트의 선한 행보에 동참했다. '카테고리'는 최성훈의 봉사 활동을 이어받아 크리스마스를 맞아 후원금을 전달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눴다. '유채꽃길'은 유채훈의 뜻을 담아 도서 50권을 후원하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아로마테라피 집단 치료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자기 이해, 자신감, 공감 향상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집단 치료 6회기를 진행했다. 아로마 환경 조성, 호흡 연습, 신체 활동, 공동 작업을 통해 심리적 안전과 치료적 효과를 경험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할 수 있었다.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발표회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전남음악창작소에서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진군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2024년 공모에 선정되어 6개월간 운영되었다. 발표회에서는 켈로, 플루트, 피아노 포핸드, 오케스트라 합주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단원과 가족들은 감사와 지속 참여 희망을 전했다.



오! 해피해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강진탐진로타리클럽과 함께 강진군 아동 15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아이들은 푸른고래의 그림자 인형극을 관람하고 퀴즈·장대 인형 조작에 참여했으며, 탐진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산타로 변신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선착순 이벤트로 캐리커처 체험을 제공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청소년 안전망 사업보고회 및 꿈드림 졸업식

박상수 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보고, 축하공연, 졸업생 소감 발표, 표창·장학금 전달이 진행되었다. 총 12명이 졸업했으며, 일부는 교육·직업훈련을 통해 사회 재정착을 준비했다. 희망비행기 날리기로 졸업생들을 응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봄봄에도 산타가 찾아왔어요!

봄봄센터

봄봄에서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기 위해 산타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머리맡에 놓여진 선물을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이후 과자집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아이들이 직접 꾸미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지원매점

지원지역아동센터

문구점처럼 꾸며진 지원문구와 다양한 분식·스낵을 제공하는 지원매점을 운영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첨 이벤트와 100 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진행해 즐거움을 더했다. 아동자치회의에서 선정한 물건과 음식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포케올데이 도시락 후원

위스타트

포케올데이는 별별산타 모임에서 후원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임직원들이 봉사에 참여해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했다. 이어서 구리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에도 방문해 크리스마스 파티에 맞춰 영양 가득한 도시락과 음료를 후원하며 아이들에게 든든한 한끼를 선물했다.



올젠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위스타트

패션 브랜드 올젠과 위스타트가 함께 국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별산타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젠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올젠' 하면 떠 오르는 단어를 댓글로 남기면, 댓글 1개당 1,000원이 기부되어 아이들에게 맞춤형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했다.



:=) 후원자 Talk :=)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돈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고군분투하시며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셨지만, 어린 마음에 가난한 부모님이 미워지기도 했죠. 상황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원하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 반면 제 친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 옷, 좋은 학원, 용돈을 받아서 하교 후에 먹는 맛있는 분식……. 부모님이 사주시는 것들로 넘쳐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점점 더 초라해지고, 내가 가진 것의 부족함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그 당시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돋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후원입니다.

후원을 처음 시작한 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 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작은 기부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기부로 5천원, 1만원을 보냈고, 점점 금액을 올려가며 위스타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기후원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당시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내 경험을 통해, 내가 도움을 주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후원은 단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돋고 싶습니다. 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나봄



위아자 래플을 우연히 처음 보고 작게나마 참여했을 때 요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좋은 행동과 연결될 수 있어 기뻤고 그것을 통해 당첨까지 되어 놀람과 위스타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좋은 활동들이 오래오래 계속되어 저처럼 작은 관심이 큰 관심으로 변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하네요!

-이유림



매년 결혼기념일때마다 케잌을 사들고 보육원을 방문했던 우리 부부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네*버 후원으로 20년을 후원해 두 아이 대학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응원하는 그룹 라포엠과 연결된 위스타트를 알게 되어 단기후원을 시작했고 다시 정기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소소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이 되길 소망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주길 소망해봅니다.

-채순옥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밝은 곳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여러분만의 빛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멀리서나마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김혜인

언제부턴가 제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아이들에게 큰 행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다른 아이들도 저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신지오



WE START

사업장 현황





아이들 마음속 땡을 보아주세요

위스타트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기릅니다.

한 명의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후원문의 1577-9572

위스타트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